

韓 임시직 비중 28%… OECD 국가 중 증가속도 가장 빨라

〈2021년〉

文 정부 기간 임시직 비중 7.7%p ↑
회원국 평균치 12.2%… 2배 이상
세계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영향”

우리나라가 최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임시직근로자 비중이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OECD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임시직근로자 비중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이후 4년간 7.7%포인트(p) 늘었다. 국내 통계청은 근로계약기간이 한 달 이상~1년 미만인 경우 임시직으로 분류한다. 기간이 1년 이상인 상용직 및 한 달 미만의 일용직과 구분되는 개념이다.

2017년 국내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임시직 비율은 20.6%에 머물렀다. 이어 2018년에 21.2%, 2019년 24.4%, 2020년 26%로 잇따라 증가한 뒤 최신 집계인 2021년에는 더 뛰어나 28.3%를 기록



파리에 위치한 경제협력개발기구 본사

/OECD

록했다.

이 기간 OECD회원국 평균치가 12.2%에서 11.8%로 외려 0.4%p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2017년 당시 한국보다 임시직 비중이 컸던 포르투갈과 폴란드의 경우 각 5.1%p와 11.1%p 감소해 2021년에 16.9%와 15.1%를 기록했다.

캐나다는 1.7%p 줄어든 12.1%였고,

프랑스와 독일도 각 1.8%p와 1.5%p 줄어 15.1%와 11.4%를 기록했다. 2017년 불과 5.9%에 그쳤던 영국의 임시직 비중은 4년 간 소폭이지만 더욱 내려간 5.6%였다.

이 밖에 스웨덴과 튀르키예(-1.7%p), 슬로베니아(-5.9%p), 헝가리(-2.9%p) 등이 마이너스 증가폭을 보였다.

일부 연도 수치가 빠진 국가 중에선 일본이 2021년 기준 15%(2018년 15.7%)였고, 2017년 기준 미국(4%)과 호주(5.3%)가 매우 작은 수준의 임시직 비중을 나타냈다. 38개 회원국 중 멕시코와 이스라엘의 통계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최근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한 한국은 이제 회원국 가운데 임시직 비중이 가장 큰 콜롬비아마저 추월할 기세다. 콜롬비아는 같은 기간 28.2%에서 28.5%로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세계의 한 관계자는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이 이 같은 결과를 불러온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냈다.

이에 따라 임시직근로자 비중 OECD 1위라는 오명을 쓸 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공식 집계한 국내 실업자수는 지난 4월 기준 80만4000명이다. 그러나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 ‘고용보조지표 3’에 따르면 불완전 취업자를 포함한 사실상의(확장) 실업자 수는 이의 세 배가량인 27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중 청년층(15~29세) 공식 실업자 수는 26만7000명인데 반해 확장 실업자 수는 79만7000명에 육박했다.

또 정부가 이달 상순 발표한 4월 실업률은 2.8%이다. 전년동월대비 0.2%p 감소해 역대 4월 기준 최저치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것은 임시직과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등을 모두 취업자에 포함한 뒤 나머지 순수 실업자만 산정한 수치다. 좀더 많은 시간의 근로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 시간제로 근무하는 사람들을 전부 취업자로 본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실업률을 다소 보수적으로 산정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이미 해외에서 나온 바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日, 반도체 업체 지원 강화 韓, ‘설비·인력’ 확충 청신호

기시다, 삼성 등 반도체 관계자 초청
현지 투자 요청… 공급망 협력 강조

전세계 반도체 업계가 다시 일본을 주목하고 있다. 이미 잘 갖춰진 생태계에 정부 지원까지 받아 경쟁력을 극대화하려는 모습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도쿄 관저에 전세계 주요 반도체 관계자를 초청했다.

이 자리에는 삼성전자와 함께 대만 TSMC, 미국 인텔과 마이크론 및 IBM에 더해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 그리고 벨기에 IMEC 등 최고 경영자가 참석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경계현 사장이 참석했으며, 팻 겔싱어 인텔 CEO도 방일 직후 한국을 들러 관심을 끌었다. 일본에서도 기시다 총리와 함께 주무장관인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동석했다.

일본은 참가자들에 현지 투자를 요청했다.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한 협력을 강조하고, 대규모 투자 지원까지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업계도 긍정적이다. 마이크론은 5000억엔(한화 약 5조원)을 투자해 최첨단 반도체 생산 기지를 짓기로 했다. 앞서 TSMC는 1조2000억엔(한화 약 11조원)를 들여 소니 및 텐소와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던 상황, 제2공장 계획도 언급했다. 인텔 역시 일본에 R&D센터 등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 삼성전자도 3000억원 수준을 들여 패키징이나 테스트 라인을 새로 만들 계획으로 추정된다.

반도체 업계가 망설임없이 일본 투자를 결정하는 이유는 막대한 투자 지원이 꼽힌다. TSMC는 구마모토현 공장 투자금 중 40%에 달하는 4760억엔을

지원받았고, 제2공장도 지원금에 따라 투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마이크론이 투자기로 한 5000억엔도 40%인 2000억엔이 지원된다. 삼성전자도 300억엔 투자 중 100억엔을 지원받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세계 최고 수준 반도체 생태계도 일본 투자 장점이다. 일본은 반도체 8대 공정에서 필수적으로 쓰이는 장비와 소재 업체를 다수 소유하고 있다.

일본 섬코와 신에츠는 전세계 웨이퍼 시장 절반 이상을 독점하는 회사다. 이중 신에츠는 EUV 포토레지스트를 비롯한 반도체 소재 부문에서도 대체하기 어려운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노광 공정도 최첨단 공정에서는 네덜란드 ASML EUV 장비가 독점하고 있지만, 레저시 공정에서는 니콘이 심자외선(DUV) 장비로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한다. 캐논이 개발한 나노 임프린트 리소그래피(NIL) 장비가 EUV 부담을 덜어줄 대안으로 주목받는다.

식각 공정 역시 일본 도쿄일렉트론(TEL) 영향력이 크다. 한동안 경쟁력이 다소 떨어졌지만, 최근 하이브리드 옥사이드 식각 장비를 론칭하면서 점유율 확대를 본격화했다. 삼성전자도 이미 일부 D램 공정에 도입했으며, 낸드 플래시 공정에서 주요 장비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후공정에서도 일본 기술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칩을 자르는 장비 세계 최고인 DISCO와 세계 최고 세라믹 기술로 반도체 패키징에 투자를 본격화한 교세라, 반도체 몰딩 부문 강자로 거론되는 도와 등 기업이 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반도체 인력난을 해소할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내놓고 있다.

/김재용기자 juk@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뛰는 ETF 위에

나는 NH다이렉트인덱싱

NH전문가 추천 인덱스를 마음대로 조정하자

내가 원하는 종목은 더하고! 내키지 않는 종목은 빼고!

ETF로 부족할 때 NH다이렉트인덱싱

[투자주의사항]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주식은 자산가치변동, 환율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과거 수익률이나 미래 수익률의 추세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 수익률은 세금 수후율이며, 실제 수익률은 세금 수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수익률의 추세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 ※ 국내 주식에 매 시 수수료율 0.100%~0.50% 오프라인 0.40%~0.50% (수수 셋째부터 반올림) 증권거래세 0.002% / 매체 별 상이하며 기타 수수료에 대한 상세내용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본사본 소개 계약 체결 시 수수료는 연 0.5%로 분기 단위로 후취하며, 일본 첫 영업일에 징수합니다. ※ 증권거래세 등 기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ETF 거래 시 보수(ETF별 상이)가 추가 발생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해당 금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 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3-00375호 [2023-02-07 ~ 2024-02-06]

투자, 문화가 된다

NH투자증권